

하나님의 집

부산 선교부장
한 인상



서울의 인구가 700 만이 넘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도시에서 사흘만에 삼일빌딩 만한 쓰레기 더미가 쏟아져 나온다는 기사를 읽고는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의 소음, 공해, 온갖 자동차와 생산 공장에서 내뿜는 오염 물질, 폐수 처리에 의한 자연수 오염, 농약에 의한 농작물 오염 공해 등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과 소용돌이 속에 살면서 그것들이 정녕 쓰레기 보다 더 무서운 저해 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흘만에 삼일빌딩 한 개 크기의 쓰레기가 서울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에 그토록 마음이 휘청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불결한 오물로 뒤 덮혀지고 있다는 순간적인 연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쓰레기 더미 속을 방황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부딪혀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

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7~28)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도 명하실 때에는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주십니다.(니일 3:7 참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단 하나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것은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을 때 해결의 방편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인간이 파묻히는 처절한 영상을 던져버리고 조용히 정리해보면, 우린 그것보다 몇 배, 몇 백배 끔찍한 인성의 오염과 공해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엄숙한 사실과 부딪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고 그 밖에 모든 사탄의 직접적인 교사와 책동으로만 자행될 수 있는 악의 물결은 삼일 빌딩 열개나 아니 백개의 쓰레기 더미에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임무를 다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협에서 구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러므로 열쇠는 나와 내 집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모든 것을 다 하여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작은 하나님으로서 땅과 하늘에 충만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1978년 2/4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1978년 5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제6 와드에서 총관리 역원이신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님의 감리하에 가졌다.

6일 토요일 저녁에는 "회원 활동 촉진"이란 주제로 대회 역원회를 가졌다. 한 가족을 활동화 시킨 사례를 역할 담당극으로 보여 주어 회원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깨워 주었고, 김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서울 서 스테이크의 각 와드 및 지부는 훌륭한 출석률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신권 지도자 모임을 가졌는데 고마쯔 장로님의 영적인 말씀과 교육으로 시간을 끝냈다. 특히 이 모임에서 고마쯔 장로님은 모든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선교사업의 기회를 가질 때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대회 일반 총회는 7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되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 일반 총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특별 준비 찬송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불러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권 승진 지지를 표하는 서 스테이크 성도들



말씀하시는 고마쯔 장로와 통역하는 이 남선 부장

일반 총회에서는 김창선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과 귀환 선교사인 이영규 형제의 간증과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이금길 자매의 간증이 있었으며, 이어서 이남선 제2보좌,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이호남 부장, 고마쯔 자매님의 간증이 있는 후 마지막으로 고마쯔 장로님의 말씀이 있었다. 고마쯔 장로님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처음으로 참석한 구도자에게는 예쁜 리본을 가슴에 달아 주어 환영하였다.

한편 유년 주일학교에서는 모임을 별도로 가져서 간식과 영적인 선물을 함께 주어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1명의 70인과 11명의 장로가 새로 탄생했다.

일반 총회의 참선인 수는 1135명이었다.

서 스테이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



서울, 서울 서 스테이크 합동 노변의 밤



말씀하는 고마쯔 자매와 통역하는 이 호남 부장

1978년 5월 7일, 서울, 서울 서 스테이크는 합동으로 제2와드에서 노변의 밤을 가졌다. 이 모임은 고마쯔 장로님의 감리와 최육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열렸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열린 이 모임에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 학장인 앤더슨 박사 부처와 브렛차 박사의 특별 간증과 말씀을 들었다.

부렛차 박사는 십여 년 전 선교 사업을 한국에서 한 바 있고 교회의 선교사 언어 담당 교수로 있어 유창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여 회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말씀하는 부렛차 형제



말씀하는 앤더슨 하와이 대학 학장

앤더슨 학장님은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한국에서 봉사한 어느 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서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서 고마쯔 자매의 말씀을 들었다. 고마쯔 자매는 하와이로 떠나시는 것을 서운해 하시면서 몸은 동양을 떠나나 한국 성도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마쯔 장로는 주님의 사업을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행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지혜의 말씀 등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을 권고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 진학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앤더슨 학장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

